

7월11일(월)/골1:24~29

제목: 교회 일 하다가 당하는 고생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영원 전부터 예정되었고 이제는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25~27절). 바울은 지금 자기가 받고 있는 고통과 투옥은 예수님의 고난을 채우고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24절).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교회는 이를 통해서 건재하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강해져야하고 진리 안에서 보존되어야 한다. 교회 안에 거하는 크리스찬은 이 일을 위해 부름 받았다. 주로 섭김과 헌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이때 고통과 고생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생은 ‘별’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다 받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실 고난의 분량을 조금 남겨 놓으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받으실 고난을 100% 다 받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 10%를 비워두셨다. 오늘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과 고생은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그 10%의 고난의 분량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특권이요 명예이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가막힌 해석이다.

7월12일(화)/골2:1~5

제목: 예수님의 보물 창고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결합되기를 위해 기도했다(2절). 교회의 법, 의식, 예식 등은 시대가 지나고 지역이 달라지면 변하기 때문에 참 교회의 특징은 오직 사랑이다. 또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풍성히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였다(23절). 바울은 비록 육체로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교통하고 있으며, 그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있는 것, 또한 그 교회들이 질서 있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4~5절).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가 있다는 말이 참으로 신선하다(3절). 교회는 항상 언제 그 행동을 할 것인지, 언제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언제 그 예산을 올려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때 기도하면 예수님의 보물 창고에서 그 타이밍(timing)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의 보물 창고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이 다 있는데 기도로 그것을 빼올 수 있다. 우리도 매순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순간에 자주 선다. 이 때 기도하면 그 창고에서 그 지혜와 지식을 가져올 수 있다. 예수님의 보물창고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다.

7월13일(수)/골2:6~7

제목: 참다운 교회의 표식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곧 교회이다(6절). 이 교회를 참되게 하는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고 세워져 있어야 한다(7절). 나무가 흙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수분과 영양을 흡수하는 것같이 교회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고 거기서 모든 자원을 얻어야 한다. 교회는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모든 자원, 즉 지혜, 지식, 은혜, 은사, 능력을 빨아 드려야지만 참다운 교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참다운 교회의 또 하나의 표식은 받아드린 교훈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7절). 당시 골로새 성도들은 그노시스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그노시스가 주장하는 주(主)는 전혀 다른 사상이었다. 참다운 교회는 항상 예수님 만이 주(主)라는 것을 불변의 진리를 지켜나가야 한다. 참다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항상 풍성하고 넘치는 감사가 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이다. 우리의 가정 교회나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안에 이 세가지 항상 있는가? 교회의 모든 결정을 예수님에게서 도출해내는 시스템인가? 교회 안에 ‘주님’이 진짜 예수님인가? 교회 안에 정말 감사의 노래와 춤과 웃음이 넘쳐 나고 있는가?

7월14일(목)/골2:8~15

제목: 빛 목록은 못 봅니다.

골로새 성도들을 괴롭힌 이단은 그노시스였는데 이것은 속임수이며 유치한 것이었다(8절). 그들은 별의 빛, 위치, 운행을 보고 길흉을 점치는 점성술을 주장하였다. 바울은 하늘의 어떤 세력보다 높으신 분이시며, 신성한 능력이 충만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별의 능력에 견주지 말라고 하였다(9~10절).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으며 신령한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한다(11~12절). 죄와 할례받지 못한 욕정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때 그들도 함께 살리셨다(13절).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실 때 사람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 채무각서도 함께 죽이셨다(14절). 채무각서는 사람이 자기가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드시 갚겠다는 자필로 쓴 각서이다. 고대 시대에는 잉크에 산이 없었기에 종이 표면에 글을 써도 종이 속까지 스며들지 않아서 닦으면 잉크는 금방 지워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빛 목록의 글자들을 이렇게 지우셨다. 하나님은 예수와 함께 우리의 빛 목록 장부도 함께 못박혀 버렸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눈으로 볼 수 없게 하셨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것을 보지 못하신다.

7월15일(금)/골2:16~19

제목: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바울은 그노시스 이단의 특징 몇가지를 지적했다. 그들은 금욕 자체를 중시했다. 그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수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였다(16절). 그들은 절기를 강조했다. 그들은 명절과 매달의 첫날과 안식일 엄수를 신앙과 동일시하였다(16절). 그들은 특별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몰두했다. 절기와 명절은 실제 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구약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17절). 그들은 천사를 숭배하였다(18절). 천사도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그들은 천사를 신격화하고 예배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환상을 가장하며 항상 주변을 들뜨게 하였다(18절). 그들은 항상 신비주의적인 요소를 끌어드려 황홀경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었다. 이상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그노시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정식 지체가 아니었다(19절). 그러므로 구약의 유월절을 지키기를 주장하는 현대의 안상홍증인회나 신천지도 교회의 지체가 아니다. 또 교회 안에서 금욕과 금식 자체를 제자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는 것도 실수이다. 교회 안에서 환상과 엑스타시를 강조하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더 많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